

# 中國 3大 地域 都農 間 所得 隔差 現況 및 形成 原因에 關한 實證 研究

南雪峰\* · 金石柱\*\*

## Analysis on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mong the Three Major Areas in China

Nan, Xuefeng\* · Jin, Shizhu\*\*

**요약** :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중·서 3대 지역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3대 지역의 주민소득에 영향 주는 요인이 각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지원 요인이 지역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그 영향 정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중국 전역에서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료보험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원 증가,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공업추진특별정책,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증가 등 지역적 정책조치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요어** : 중국, 동·중·서 3대 지역, 도농 간 소득격차, OLS회귀분석

**Abstract** : As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in China, the problem existing in income gaps become a tough and sensitive social problem. Under this social background, this research try to find the main reasons of the income gap among the East China, West China, and the central China, basing on the analysis of its actuality and forming, and then put forward some solution plans. The research shows that in different development levels of China influencing factor of urban-rural income gap is also different. Take East China for example, the education support plays an important part of narrowing income gap. The influence of education support on urban-rural income gaps more significant than industrialization, what is more, its influence has the more reinforce trend, while in the less developed central and western part in China, what can narrowing income gap significantly is industrialization and the support for agricultur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radically, it is not enough to perform medical insurance reform and social insurance reform in the whole county. Besides this, we should perform other kinds of reformation countermeasures which have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eastern, the regional governments should reinforce the education system; in central china, they should focus on developing industry; in western, the region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expense to support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so on. With these countermeasures, they could not only reliev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but also ensure to develop economy substantially and stably in the whole country.

**Key Words** : CHINA, east the mid-west east, central and west three major areas, urban-rural income gap, OLS regression analysis

### 1. 서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격차 문

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는 전체 소득 격차의 40%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李實, 2007).

\* 延邊大學校 國際貿易學科 副教授(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Yanbian University)(nanxf@hanmail.net)

\*\* 延邊大學校 地理學科 副教授(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jinsz@hanmail.net)

歐陽志剛(2009)의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는 주로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sup>1)</sup>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 농촌주민 사이의 소득격차는 도시주민 사이의 소득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의 형성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우선 국가통계국농업조사총대(國家統計局農調查總隊)(1994)는 1978~1992년 기간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원경제구조<sup>2)</sup>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의 근본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楊俊(2006), 章奇(2004)와 溫濤(2005)는 각각 1978~2003년, 1978~1998년과 1952~2003년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중국의 금융발전이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陸明(2005)은 도농 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은 중국 정부의 도시중심적인 개발정책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금융발전과 소득격차 확대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王曉婷·陸遷·吳海霞(2009)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경우 도시화가 진척될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교육 등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설명하기도 한다. 賴德勝(1997)과 白雪梅(2004)는 분석을 통하여 중국 전체의 경우 교육과 도농 간 소득격차 간에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특정 성/시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도 다소 있어왔지만 지역과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 보다는 특정된 한 가지 요인이 그 지역 도농 간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 중에서 胡金焱·盧立香(2009)은 산둥지역의 경우 지역 금융이 발전할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王海云·陳立泰·黃任川·郭春麗(2009)는 충칭의 경우 고등교육의 발전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특정 성/시 하

나에만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 각 성과 시 및 자치구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발전 차이가 뚜렷한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형성된 원인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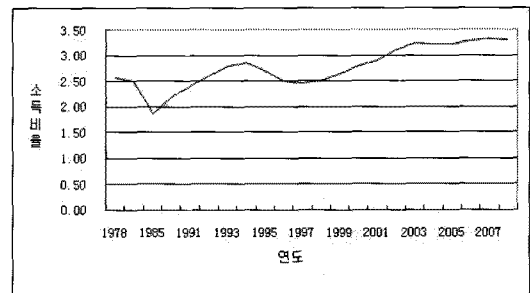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1985~2008년간 중국의 30개 성과 시 및 자치구<sup>3)</sup>의 지역별 패널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동·중·서 3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대해 비교분석한 다음 구체적인 형성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3대 지역의 도농 간 소득 격차 현황

### 1) 중국의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 현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전체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완화—확대—완화—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개방 초기인 1978년에 2.57배이던 도농 간 소득격차는 1985년에 이르러 1.86배로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이는 주로 같은 시기 동안 우선 실행된 농촌개혁으로 농촌주민들의 실제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986~1994년간 도농 간 소득격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5년의 1.86배로부터 1994년의 2.86배로 증가하였다(그림 1). 이 기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주 원인은 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방초기의 농촌개혁 실행 이후 식량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었으



자료: 각 연도의 『中國統計年鑒』.

그림 1. 1978~2008년 기간 중국의 도농 간 주민 소득비율

나 정부는 기존의 전량구매정책<sup>4)</sup>을 폐지하고 농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농민들의 실질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5~1998년간 동남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99년부터는 더욱더 확대되어 2008년에 이르러서는 3.31배에 달하였다.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제도적 원인으로는 우선 현행 호적제도를 들 수 있다. 개방초기에 실시된 농촌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수많은 농촌 잉여 노동력이 나타났지만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중국의 호적제도 하에서 농촌 노동력은 자유롭게 도시의 비농업생산부분으로 이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은 농업생산 이외의 분야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도농 간 소득 격차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도시주민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제도를 거론할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도시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물가, 주택, 교육, 의료, 교통 등 분야에서 총소득의 2/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농촌주민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들은 소득 중 일부 부분을 다음해의 생산물

자 구입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소득은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도농 간 소득 격차는 통계자료의 3.8배가 아닌 5배 또는 6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袁琳琳, 2007).

## 2) 동·중·서 3대 지역의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 현황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지역별 발전 기반이 비균형적이기 때문에 도농 간 소득격차도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5~2008년 동안 동·중·서 3대 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비율을 살펴보면 동부나 중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1985년의 1.57배에서 2008년의 2.59배로 증가하였고 중부지역은 1985년의 1.69배에서 2008년의 2.87배로 증가하였지만 서부지역은 1985년의 2.18배에서 2008년의 3.73배로 증가하였다(표 1). 결론적으로 동부 지역보다는 중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동·중·서 3대 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는 뚜렷한 수준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비율

연도	동부	중부	서부	연도	동부	중부	서부
1985	1.574901	1.691319	2.181951	1997	2.035336	2.183176	3.185244
1986	1.691580	1.918412	2.446417	1998	2.018710	2.186562	3.149432
1987	1.674578	1.965496	2.543985	1999	2.129532	2.347662	3.313046
1988	1.674153	2.000088	2.505942	2000	2.209495	2.494243	3.502835
1989	1.730880	2.159483	2.652806	2001	2.270197	2.618231	3.660701
1990	1.780760	1.972205	2.536557	2002	2.307126	2.779249	3.761720
1991	1.800724	2.259946	2.778151	2003	2.375598	2.940573	3.792905
1992	1.950962	2.388646	3.114953	2004	2.385159	2.837697	3.731824
1993	2.108025	2.596402	3.436239	2005	2.514726	2.905062	3.768621
1994	2.234304	2.579889	3.616709	2006	2.566436	2.938758	3.779826
1995	2.116924	2.472166	3.577053	2007	2.578040	2.936689	3.782831
1996	2.031326	2.233631	3.361933	2008	2.595489	2.874118	3.730411

자료: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2005)과 2005~2009년도 『中國統計年鑒』에 의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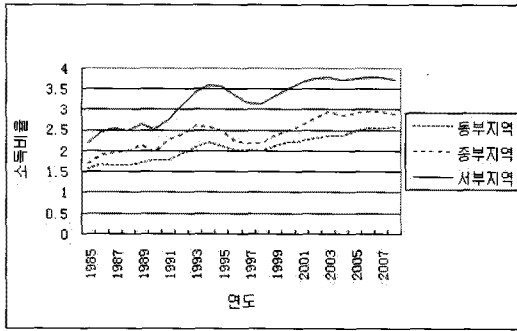


그림 2.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주민 소득비율

1992년 덩샤오핑의 남방시찰 이후 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던 세 지역 간의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sup>5)</sup>는 1999년 이후 중국정부가 서부대개발정책<sup>6)</sup>을 발표한 이후에도 뚜렷하게 좁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3. 3대 지역의 도농 간 소득 격차 형성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 1) 3대 지역의 도농 간 소득 격차에 영향 주는 요인

중국 3대 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가 다르게 형성된 원인은 주로 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취업기회의 불평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회보장체계의 불평등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취업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빈곤감소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비록 경제성장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제성장 자체가 소득분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빈곤율을 낮추고 지나치게 큰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각한 소득격차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요인에는 주로 일인당 GDP, 투자율, 도시화율, 대외무역 의존도, 비농업

분야 경제성장율, 농업경제성장율, 농수산물 수매 가격 지수, 농촌공업품소매가격, 이원경제구조, 지방재정의 농업에 대한 지지비중, 도로망의 밀집도, 전화 보급률 등이 있다.

한편 제도적 요인에 속하는 정부정책은 절대적인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의 경제발전 상황이 증명하듯이 중국의 경우 정부정책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이원관리체제는 줄곧 유지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오늘과 같이 심각한 도농 간의 소득격차로 이어졌다는 비판여론도 높다. 비록 개혁개방 이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중국정부의 이원관리체제의 기본적인 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관련 변수들을 전부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다.

분석의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제도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다중공선성 문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만 최종모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모형에 포함되었던 대학생 비중으로 나타낸 또 다른 인적자본 변수의 경우 지방정부의 교육, 위생, 문화 등의 비용을 나타낸 인적자본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체 모형에 대한 설명력도 부족하여 모형에서 배제시켰다.

결과 기존 연구들의 기초위에서 아래의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1) (S) 이원경제구조

이원경제구조는 도농 간의 노동생산성 차이를 나타내주는 경제지표(陳迅·童華建, 2007)로서 각 지역의 도시주민의 노동생산성을 농촌주민의 노동생산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도시주민 노동생산성은 도시의 총생산액을 도시주민 수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농촌주민의 노동생산성은 농촌의 총생산액을 농촌주민 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공업화를 달

$$\begin{aligned} \text{이원경제구조(S)} &= \text{도시노동생산성/농촌노동생산성} \\ &= (\text{도시총생산액/도시근로자수})/(\text{농촌총생산액/농촌근로자수}) \end{aligned}$$

성하기 위하여 도시에 대부분의 물질 자본과 양질의 인적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원경제구조가 심화될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 (N)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 지원금과 농업관련 판공비의 비중:

지방정부의 농업지원자금은 국민소득의 재분배 과정에서 농업으로 흘러드는 순유입부분이다. 농업지원자금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농촌주민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재정지출은 주로 사회적 효과는 뚜렷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부족한 농업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에 쓰이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주민 소득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비용의 지출 증가는 농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3) (EDU)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교육관련 비용의 비중:

인적자본을 나타내기 위한 대체지표로서 지방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 교육, 위생 관련 사업비용의 비중을 나타낸다. 많은 논문들에서는 지역 대학생 수를 인적자본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교육 지출 비중과 도농 간 소득격차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교육관련 비용의 비중을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 정부의 교육, 문화, 위생 지출만 고려된 변수라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교육에 대한 지출을 나타낸 통계수치는 구할 수 없다. 이 변수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오랫동안 도농 분리 관리체제가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비용 지출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지방정부의 교육관련 비용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한계효용제감의 측면으로부터 볼 때 도시의 경우 교육관련 투자가 이미 농촌보다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투자 효과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4) (I) 공업화율:

이 변수의 경우 각 지역 공업부문의 생산액이 전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공업화로 더욱 많은 농촌주민들의 공장 취업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주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정책을 실시해 왔다.

(5) (T) 제3차산업비중:

제3차산업비중은 각 지역의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제3차산업 생산액의 비중을 나타낸다. 제3차산업의 경우 농촌보다는 도시가 발전 가능성이 더 풍부하며 특히 이들 산업에 속하는 정보통신산업, 하이테크산업은 농촌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3차산업 노동력의 증가는 대부분 도시주민 취업기회의 증가와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6) (U) 도시화비율:

각 지역의 도시화 비율은 거주지 원칙에 따라 도시주민 수가 전체 주민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농촌주민 자체의 수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농촌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시화비율의 증가는 도농 간 소득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들 변수만으로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를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실증적인 측면에서 동·중·서 3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형성원인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모형설정 및 자료설명

3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자기상관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변수들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따라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변수들의 변화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모형중의 종속변수 CR은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며 지역 도시주민의 인구 당 가처분소득을 농촌주민 순소득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이다. 모든 변수들의 1986~2008년 기간의 통계수치들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충칭시의 경우 설립된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쓰촨성에 포함시켰다. 통계수치들은 주로 2006

~2008년의 『中國統計年鑒』,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農村統計年鑒』, 『中國人口統計年鑒』 등에서 얻을 수 있었다. 중국 3대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는 1994년과 1999년 이후의 상승기 및 1995~1998년 기간의 완화기를 경과해 왔다. 따라서 1986~2008년의 전체 기간을 다시 1986~1994, 1995~1998, 1999~2008년 등 3개 시기로 나누어 세부 시기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분석결과 및 해석

분석결과<sup>7)</sup>, 동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요인 중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공업화요인과 인적자본 요인이었다.

우선 동부지역의 공업화 비중이 1% 증가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200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공업화 발전을 우선과제로 내세웠고 이는 농촌지역의 수많은 향진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ln CR = b_0 + b_1 \ln N + b_2 \ln I + b_3 \ln S + b_4 \ln EDU + b_5 \ln U + b_6 T + \epsilon_{i,t} \dots \dots \dots (1)$$

표 2. 각 요인들이 동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8	1986~1994	1995~1998	1999~2008
lnI(공업화율)	-0.2003*** (-6.145)	-0.1497*** (-3.014)	-0.1401** (-2.041)	-0.1047* (-1.585)
lnS(이원경제구조)	0.409*** (12.992)	0.4308*** (6.211)	-0.083 (-0.617)	0.1975*** (2.885)
lnEDU(인적자본)	-0.1787** (-2.365)	0.0928 (0.768)	-0.1674 (-0.959)	-0.3064*** (-2.909)
lnU(도시화)	0.0159 (0.593)	0.0303 (0.933)	0.0262 (0.462)	0.0269 (0.457)
lnT(3차산업)	0.2008*** (4.655)	0.1841** (2.413)	-0.2694 (-1.18)	-0.0154 (-0.187)
lnN(농촌지원)	0.2743*** (7.104)	0.29*** (3.821)	0.0634 (0.573)	0.2348*** (4.728)
표본 수	253	99	44	110
Adj R <sup>2</sup>	0.5633	0.6166	0.5023	0.4004
DW통계치	1.503	1.865	1.667	1.525
F값의 유의도	0.001	0.001	0.001	0.001

주: \*\*\*는 1%이내 유효함을 나타내며 \*\*는 5%이내 유효함을 나타내고 \*는 10%이내 유효함을 나타냄.

이 지역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도 완화시켰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업화 요인의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점차 소실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986~1994년 기간에  $-0.1497$ 이던 공업화 요인의 회귀계수가 1995~1998년 기간에는  $-0.1401$ 로 줄어들었고 1999~2007년 기간에는 더욱 줄어들어  $-0.1047$ 이 됨으로써 공업화를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의 완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 분야에 취직이 가능하게 되므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완화되게 된다. 실제로 동부지역의 경우 인적자본요인 즉 정부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관련 비용의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는  $0.178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이 실제로 농촌주민들의 소득증가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와 같은 추세는 1997년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정부의 교육관련 재정지출의 효과적인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동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이원경제구조요인, 3차산업 비중요인, 정부의 농촌지원요인(lnN)이 있다. 특히 이원경제구조가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1986~2007년 전체 기간 동안 동부지역의 이원경제구조가 1% 확대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409\%$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농촌의 노동력이 호적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할 수 있고 전통 농업부문의 잉여 노동력이 기타 공업 분야로 이동할 수 있다면 현재의 이원경제구조가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농촌의 토지 자원이 적어 농촌의 인구나 노동력이 많이 남아도는 현실인데 반해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은 여러 가지 정책적 제한을 받고 있어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동부지역의 경우 이원경제구조가 점차적으로 완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3차산업 비중의 증가 역시 동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간 주민 소득격차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산업에는 노동 집약형 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 집약형 산업도 포함되며 동부지역 3차산업은 기술 집약형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집약형 3차산업의 발전이 노동 집약형 3차산업과는 달리 농촌노동력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정부의 농촌관련 지출 비중(lnN)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과는 매우 다르다. 이와 같은 결과치가 나타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정부의 농촌지원관련 지출항목에는 분석에 사용된 농업생산지출과 농업, 임업, 수리업(水利業) 관련 업무비용 뿐만 아니라 농업기본건설지출, 농업연구개발비용, 농촌구제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1986~2008년 간 30개 성·시·자치구의 수치들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없어 일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생산지출과 제반 업무비용만 정부의 농업지원지출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변수 자체가 정부 재정의 농업지원 효과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庄子銀·鄒薇(2003)의 논문도 정부의 농촌지원 관련 지출 항목의 경우 비용이 효과보다 더 큰 폐단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농업관련 정부지출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전체 농업생산 비용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 부분 지원금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이 낙후한 지역일수록 이 부분 지원금은 농촌주민 소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유의한 변수는 공업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화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보다는 중부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동안 중부지역의 공업화비중이 1% 증가할 때 도농 간

표 3. 각 요인들이 중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8	1986~1994	1995~1998	1999~2008
lnI	-0.276** (-2.403)	-0.2534** (-2.324)	-0.0797 (-0.617)	-0.4041** (-2.17)
lnS	0.4067*** (7.336)	0.6029*** (6.907)	0.1218** (2.144)	0.2168** (2.178)
lnEDU	0.0999 (0.74)	0.25* (1.624)	0.3227 (1.62)	-0.1865 (-1.365)
lnU	0.031 (0.566)	0.0235 (0.372)	-0.0686 (0.937)	-0.1098* (-1.817)
lnT	0.0714* (1.691)	0.3483*** (2.779)	-0.3102 (-1.641)	0.0219 (1.025)
lnN(농촌지원)	-0.0438 (-1.347)	-0.1229*** (-3.106)	-0.0018 (-0.048)	0.0485 (1.607)
표본 수	207	81	36	90
Adj R <sup>2</sup>	0.5691	0.589	0.5865	0.5045
DW통계치	1.718	1.649	2.331	1.8
F값의 유의도	0.001	0.001	0.001	0.001

주: \*\*\*는 1%이내 유효함을 나타내며 \*\*는 5%이내 유효함을 나타내고 \*는 10%이내 유효함을 나타냄.

소득격차는 0.27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동부지역의 0.2003%나 서부지역의 0.198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공업화요인이 이 지역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1999년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과는 사뭇 다른 지역적

표 4. 각 요인들이 서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8	1986~1994	1995~1998	1999~2008
lnI	-0.1989*** (-7.155)	-0.0469 (-1.08)	-0.5209*** (-11.226)	-0.2026*** (-6.493)
lnS	0.6318*** (15.842)	0.6913*** (10.226)	0.5659*** (6.046)	0.2472*** (3.381)
lnEDU	0.2034*** (2.608)	-0.2395* (-1.696)	1.1146*** (6.589)	0.2735*** (3.177)
lnU	0.0612** (2.311)	0.0066 (0.174)	0.0293 (1.112)	-0.0436 (-0.988)
lnT	0.3664*** (10.313)	0.4395*** (6.174)	-0.1638** (-2.139)	0.0093 (0.097)
lnN	-0.0862*** (-4.282)	-0.2596*** (-5.359)	0.0074 (0.238)	0.032 (1.281)
표본 수	230	90	40	100
Adj R <sup>2</sup>	0.6052	0.5995	0.8694	0.586
DW통계치	1.736	1.826	2.127	1.739
F값의 유의도	0.001	0.0001	0.0001	0.0001

주: \*\*\*는 1%이내 유효함을 나타내며 \*\*는 5%이내 유효함을 나타내고 \*는 10%이내 유효함을 나타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중부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유의한 변수는 이원경제구조요인과 3차산업비중 요인이었다. 회귀계수의 크기로부터 볼 때 역시 도농 간의 이원경제구조가 도농 간 소득격차가 형성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중부지역도 동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원경제구조가 점차 완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에 효과적인 유의미한 영향으로 작용한 요인은 공업화비중과 정부의 농촌지원이었다. 공업화비중의 경우 서부지역에서 공업화 비중이 1% 증가하게 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1989%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보다는 공업화의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다소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원의 경우 기타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지원이 1% 증가하면 도농 간 주민 소득 격차가 0.0862%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과는 아주 다른 결과로서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부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 보다는 월등히 높다. 따라서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인구에 지원되는 농업생산 지원금은 직접적으로 농촌주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짐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줄어들 수 있었다.

또한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과 비교할 때 서부지역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원의 비중이 아주 크다. 즉 정부지원금의 유무가 농업활동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며 그만큼 농촌주민 소득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시기별 분석결과, 정부 지원금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을 가져온 효과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본금을 거의 정부지원에 의지해야 했던 1994년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영향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 정부의 교육지원, 도시화, 3차산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소득격차 문제는 중국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격차에는 지역 간 소득격차, 도농 간 소득격차, 산업간 소득격차, 소유주체간 소득격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농 간 소득격차에 관한 문제는 중국 내 전체 소득격차 문제의 40%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이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특정된 한 가지 요인에 치중한 분석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동·중·서부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체와 중국 내의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정도와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결과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도시보다 먼저 실시된 농촌개혁의 성과로 농촌주민들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가 많이 완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6~1994년 동안 도시 위주의 경제개발이 이어지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1995~1998년 기간 동안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도농 간 소득격차는 경기회복이 시작된 1999년부터 또다시 빠른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도농 간 소득격차를 지역별로 볼 때 동부지역 보다는 중부지역에서 격차가 더욱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서부지역은 중부지역 보다는 그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에는 공업화요인, 이원경제구조요인, 정부의 교육지원과 농업지원요인, 도시화요인, 3차산업 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동부 지역 도농 간 주민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유의한 영향요인은 공업화 요인과 인

적자본요인이었으며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과 3차산업 요인이었다. 특히 인적자본 요인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동부지역에서만 주민 간 소득격차<sup>8)</sup> 완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동부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려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주민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부지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려면 공업화 촉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역시 이원경제구조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산업의 발전도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서부지역은 주민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영향요인은 공업화와 정부의 농촌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은 서부지역에서만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주민 전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영향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 정부의 교육지원, 도시화, 3차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볼 때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더불어 지역별 특징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득격차 완화 조치로는 이원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호적(戶籍)의 개혁이나 의료보험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부지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농촌주민(의) 교육지원비 증가, 중부지역(은) 지방정부 차원의 공업화촉진 정책, 그리고 서부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농업지원비 증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

- 1) 동부지역에는 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遼寧省,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 山東省, 廣東省, 海南省, 福建省 등이 포함되고; 중부지역에는 山西省, 內蒙古自治區, 吉林省, 黑龍江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등이 포함되며; 서부지역에는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寧夏回族自治區, 新疆自治區, 西藏自治區, 重慶市, 廣西壯族自治區 등이 포함된다.
- 2) 二元경제구조: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대부분의 물적 자본과 양질의 인적 자본을 도시에 투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제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도농 간 노동생산성 비교수치로서 이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 3) 충칭(重慶)의 경우 설립된 기간이 오래지 않으므로 쓰촨(四川)성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 4) 전방구매정책: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전부 정부에서 구매함을 뜻함.
- 5) 도농 간 주민 소득 격차: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으로 나눈 값임. 수치가 크면 클수록 양 부류 주민 간 소득 격차가 뚜렷함을 나타냄.
- 6) 서부개발 정책: 중국 정부가 서부지역과 동·중부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 7) 본문의 분석은 동부, 서부, 중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이들 지역의 구분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연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동부지역에는 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遼寧省,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 山東省, 廣東省, 海南省, 福建省 등 11개 성/시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동부지역에 관한 분석에는 이들 11개 성/시들의 1986~2008년 까지 23년간의 패널데이터 253개가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중부지역에는 山西省, 內蒙古自治區, 吉林省, 黑龍江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등 9개 성/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부지역에 관한 분석에는 이들 9개 지역의 1986~2008년 까지 23년간의 패널데이터 207개가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서부지역에는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寧夏回族自治區, 新疆自治區, 西藏自治區, 重慶市, 廣西壯族自治區 등이 포함되지만 重慶은 사천성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했으므로 이들 10개 성/시의 1986~2008년 까지 23년간의 패널데이터 230개가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 8) 주민 간 소득격차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주민들 간의 인구당 순소득 또는 인구당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는바 중국의 경우 주민 간 소득 격차는 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해있는 주민 간 소득 격차, 도시주민과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간 소득격차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 소득격

차에 관한 문제는 중국 내 전체 소득격차 문제의 40%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본 문헌 분석에서 사용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소득격차는 해당지역의 도시주민의 인구 당 가처분소득을 농촌주민 순소득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이다.

## 문헌

- 歐陽志剛, 2009, 我國城鄉收入差異的變化特徵及其地區差異, 生產力研究, 第19期, 31-32.
- 國家統計局農調總隊課題組, 2004, 城響居民收入差距研究, 經濟研究, 第12期.
-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2005,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國家統計局.
- 紀玉山, 2005, 技術進步與居民收入分配差距, 當代經濟研究, 第5期, 55-58.
- 羅潤東, 2008, 技術進步下農村人力資本與收入差距的互動機制研究, 經濟研究, 第1期, 89-95.
- 陸銘·陳釗·萬廣華, 2005, 因患寡, 爾患不均—中國的收入差距, 投資, 教育和經濟增長的相互影響, 經濟研究, 第12期, 1-11.
- 賴德勝, 1997, 教育擴展與收入不平等, 經濟研究, 第10期, 46-53.
- 白雪梅, 2004, 教育與收入不平等: 中國的經驗研究, 管理世界, 第6期, 53-58.
- 楊俊, 2005, 中國金融發展水平與居民收入分配的實證分析, 經濟科學, 第2期, 71-73.
- 楊新銘, 2007, 技術進步, 工資差距與人力資本形成, 當代經濟科學, 第5期, 19-25.
- 溫淘, 2005, 中國金融發展與農民收入增長, 經濟研究, 第19期, 59-62.
- 王海云·陳立泰·黃任川·郭春麗, 2009, 教育作用于城鄉收入差距的實證檢驗: 擴大或抑制—以重慶市為例(1985-2006), 經濟問題探索, 第10期, 23-29.
- 王曉婷·陸遷·吳海霞, 2009, 城市化水平對城鄉收入差異影響的協整分析, 生態經濟, 第10期, 338-341.
- 袁琳琳, 2007, 中國城響收入分配差距的經濟效應分析和政府政策選擇, 首都師範大學學報, 第6期, 116-121.
- 李實, 2007, 中國城響居民收入差距的重新估計—經濟學研究, 第2期, 111-120.
- 彭鍛鍊, 2007, 政府農村投入對城響收入差距的長期影響, 財經論叢, 第3期, 22-29.
- 章奇·劉明興, 2004, 中國金融發展與城響收入差距, 中國金融學, 第1期, 26-31.
- 庄子銀·鄒薇, 2003, 公共支出是否能促進經濟增長—中國的經驗分析, 管理世界, 第7期, 4-12.
- 陳志剛·師文明, 2008, 金融發展, 人力資本和城響收入差距, 中南民族大學學報, 第2期, 144-149.
- 陳迅·童華建, 2007, 城市化與城響收入差距變動的實證研究, 生產力研究, 第10期, 64-66.
- 韓文秀·尹艷霖·馮建林, 2003, 中國居民收入差距研究綜述, 經濟研究參考, 第83期, 88-92.
- 胡金焱·盧立香, 2009, 山東省金融發展與城鄉收入差異關係的實證研究: 1978-2007,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10-17.
- Cai F. and Du Y. 2006, "The changing nature of rural poverty and new policy orientations," *The Chinese Economy*, 39, 10-24.
- Fan S, 1991, "Effects of Technological Change and Institutional Reform on Production Growth in Chinese Agriculture", *Am. F. Agric.* 73, 266-275.
- Gustafsson B., and Wei Z., 2000, "How and why has poverty in China changed? A study based on microdata for 1988 and 1995," *China Quarterly*, 164, 983-1006.
- Kanbur R. and Zhang X., 1999, "Which regional inequality? The evolution of rural-urban and inland-coastal inequality in China, 1983~199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7(4), 686-701.
- Khan A. R. and Riskin C., 2001, *Inequality and Poverty in Chin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night J. and Song L., 1999, *The rural-urban divide: Economic disparities and interactions in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Li H. and Zhu Y., 2006, "Income,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Evidence from China,"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4(4), 668-693.
- Lin, J.Y., 1992, "Rural Reform and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82, 34-51.
- Meng X. 2004, "Economic restrictions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6, 357-379.
- Ravallion M. and Chen S., 2007, "China's (Uneven) progress against pover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2(1), 1-42.
- Tsui K. Y., 1991, "China's regional inequality, 1952-8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5(1), 1-21.
- Zhang Y. and Wan G., 2006, "The impact of growth and inequality or rural poverty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4(4), 694-712.
- 교신 : 南雪峰(中国延边大学经济管理学院国际贸易系, nanxf@hanmail.net, 전화: 0433-273-2841)  
Correspondence : Nan Xuefe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Yanbian University, China(nanxf@hanmail.net, phone: 0433-273-2841)
- (접수: 2010.7.28, 수정: 2010.8.18, 채택: 2010.9.27)